

Dave H. Kim

김대호

3-19-04

LS 498 – Prof. S. Lee

소설 읽기

### “육촌형”

이현주 작가의 “육촌형”은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이 재미있고 특별한 이유는 성태라는 5학년생 어린이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다. 물론 소년의 입장에서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소년이 생각하는 것과 성인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5학년생의 스타일로 이야기를 말해주고 표현한것이 특이하다. 쉽게 말하자면, 성태의 말투를 상상 할 수 있고 성태의 언어가 재미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중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을 너무 재미있어 하는 내가 좀 유치한것 같기도 하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여러번 싸운 사건들 생각나며 그리운 옛날에 대한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성태 또 성태의 육촌형 근태는 같은 양짓담 마을에서 살았는데, 근태네가 음실로 이사를 간 후로 그 둘의 사이는 달라지게 되었다. 성태와 근태의 사이는 좋은 사이였지만 두 마을의 배경이 안좋은 때 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두 마을 아이들은 모두 산동초등학교 다녔다. 어느날 하루는 산동초등학교로 전학 온 두 아이들 홍탱크와 오토바이는 싸움이 터졌다. 원래 탱크 이름은 철식이고 오토바이 이름은 소비연이었다. 그들은 그 싸움 사건 후로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각 마을에 두목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양짓담 아이들과 음실 아이들은 사이가 저절로 안좋게 되었고 성태와 근태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었다. 두 육촌들은 조심스럽게 다른 아이들 눈치

보면서 만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각 마을에게 충성을 증명하러 억지로 서로 싸우게 되었다. 탱크와 오토바이의 압박을 느끼고 두 육촌들은 할수없이 서로 싸웠다. 근태가 성태한테 육촌형이지만, 근태는 체격이 작고 싸움은 **막상막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싸움을 일찍감치 멈치고 각 보스에게 반항했다. 성태와 근태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특하면 엉겨붙어 싸우면서 자라난 사이였지만 그 날은 달랐다. 성태의 코피를 보고 근태는 씩씩거리면서 성태 얼굴을 손으로 닦아 주고 그만 싸운다고 탱크에게 말했다. 탱크는 계속 싸우라는 명령을 거역한다고 근태를 주먹으로 쳤을 때에 성태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돌을 들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 육촌형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갖고 탱크에게 덤볐다. 바로 그 때에 다른 양짓담 아이들과 음실 아이들도 같이 그만 싸우고 싶다고 말하며 상황이 성태와 근태에게 유리하게 변했다. 끝에는 모든 아이들은 앞으로 그만 서로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산동초등학교로 전학 온 대장들만 남아있게 놔두고 떠났다. 이렇게 두 마을 아이들은 **개과천선**하며 또 다시 사이 좋게 생활을 할수 있었다.

나는 “육촌형”을 읽으면서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여러번 싸운 사건들을 생각했다. 특히 3학년 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싸운 것과 5학년 휴게시간 때 놀이터에서 싸운적이 생각났다. 3학년은 Washington, D.C. 에서 가까운 Baileys Elementary School 을 다니고 있었다.

어느날 하루는 Brady 라는 흑인 아이가 점심시간 때 내가 영어할줄 모른다고 놀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특별히 기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점심식사로 멕시코식의 taco 를 먹게됐는데, taco 를 어떻게 먹을줄 모른다고 놀렸다. 그 때에는 다른 아이들도 같이 비웃었다. 그렇지 않아도 맛이 이상한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 불만이었는데, Brady 를 혼내줄 마음이 생겼다. 나머지 taco 를 Brady 에게 던지고 별떡 일어섰다. Brady 는 체격이 작은 나를 우습게 보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Brady 에게 기회를 안주고 옆으로 피하는 동시에 발로 Brady 의 얼굴을 찼다. Brady 는 혼자서 넘어지고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금방 오셔서 싸움 말리시고 Brady 의 코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사실은 Brady 는 큰 아이였고 또 흑인 아이라서 조금 긴장 했었는데 별것도 아니었다. 선생님이 무슨일로 싸웠냐고 질문 하셨을 때에 나는 영어를 못하는 척했다. 사실은 못하는 척 보다 영어실력이 실제로 많이 부족했다. 그 사건 후로는 Brady 와 나는 좋은 사이가 되었다.

또 5 학년 때에는 Mantua Elementary School 을 다니고 있었고 영어실력이 많이 늘었을 때 었다. 그러나 어느날 하루는 말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휴게시간에는 꼭 놀이터에서 30 분동안 놀았는데 Marcelo 라는 뚱뚱한 아이가 Scott 라는 친구랑 싸웠다. Marcelo 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학 온 아이였고, Scott 는 나의 제일 친한 아이중에 한 명이였다. 갑자기 내 뒤쪽에서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Scott 가 Marcelo 한테 주먹으로 맞은 것 이였다. 내가 Marcelo 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했을 때에 Marcelo 는 나에게 달려들었다. Marcelo 는 하도 뚱뚱한 아이라서 잘 못 뛰었다. 그래서 나는 피하지 않았고 대신 Marcelo 에게 봉 뛰어올라 얼굴을 발로 찼다. Marcelo 는 그 때에 넘어지고 자기 이를 뺏으면서 울기 시작했다. Scott 외에 다른 증인들이 없는바람에 그 사건 후로 Marcelo 는 비겁하게 혼자서 우리 둘을 꽤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아무튼 Marcelo 는 다시는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았고 항상 피해 다녔다.

이현주 작가의 “육촌형”은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여러번 싸운 사건들을 생각하며 그리운 옛날에 대한 추억에 잠기는 것이 너무 재미 있었다. 또 “육촌형”은 나쁜 상황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제거하라는 좋은 주제를 가르쳐준다. 이 두 이유로 나는 “육촌형”을 좋아 할 수 밖에 없다.